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이들이 됨과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발전시킴

4/07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1:12-13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벧후 1: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요일 1:1-2, 5

1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시다.

2 (이 생명이 나타났습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 줍니다.)

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5:11-13

11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한 심을, 즉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과 요소와 조성 성분들을 가리킨다(요 4:24, 요일 1:5, 4:8, 16). 주로 신성한 생명의 조성 곧 하나님의 조성을 가리키는 신성한 본성은 영과 사랑과 빛으로 구성된다. ...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하고 하나님 종(種)에 속한다 (요일 3:1, 요 1:12-13). 우리가 거듭났을 때 또 다른 본성이 우리 안에 넣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본성이다. 신성한 본성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얻은 신성한 생명 안에는 신성한 본성이 있다(요 3:3, 5-6, 15).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믿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요 1:12-13).(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4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89, 32-3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신성한 요소들에 동참하고 있다. ...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 속에 신성한 본성이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요 1:4, 10:10, 11:25, 6:57 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말미암아 신성한 생명을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 존재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들에 따라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실 것이다. ... 비록 우리가 믿은 순간에 신성한 생명을 받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신성한 본성을 누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신성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와 옷과 행위를 규제해 주는 외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하는 모든 규제는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갓난아기에게는 사람의 본성이 있다. 어린 아기는 외적인 규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여전히 먹는 것을 규제해 주는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아기들에게 단것과 쓴 것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아기들에게는 사람의 입맛을 지닌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입맛을 지닌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과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본성도 있다. 생명을 강조하는 것은 생활하는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고, 본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성향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에 속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곧 하나님의 성향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교만할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겸손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겸손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취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이익을 함께 나눌 때 매우 기쁘다. 왜냐하면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향이기 때문이다. ...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에 특별한 취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해방되고 죄와 악을 사랑하지 않기가 쉽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 뿐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생활하기 위한 역량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취향이 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죄들과 악을 이기는 것을 매우 쉽게 해 준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노래하며 시를 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다(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열고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분발시키고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가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방식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4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89, 34-37, 3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4

4/08 화요일

아침의 누림

벧후 1: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고후 12: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마 28:20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엡 3: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요일 3:1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도록,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요 3:3, 5-6, 16

3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5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한다. ... 우리에게 확신과 격려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 이러한 약속들 중 한 가지 예는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12 장 9 절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다. ... 주님께서 이 약속을 바울에게 주신 이유는 그가 육체 안의 가시를 견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가시’를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충분한 은혜가 필요하다. 이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약속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미덕이라는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신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다.(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4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이 약속들을 통하여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벧후 1:4).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사도행전 2 장과 3 장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고 있었다. 다른 이들이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표현을 본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조성되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마땅히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께 동참한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조성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신격에 도달하거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철저하게 조성될 수 있다.

우리의 신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조성된다. ...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으로 조성되어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는 신성한 향기를 발할 수 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동참한다면 결국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그분께 동참할 것이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만날 때, 그들은 우리 안에서 삼일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적셔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 많이 적셔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표현할 것이다.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요소들과 성분들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존재의 여러 방면들이 우리의 누림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의와 거룩함과 인자와 사랑과 자비에 동참한다. 이렇게 동참하는 것은 신성한 본성의 조성 성분들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후서 1 장 4 절에는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에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 조건은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패되는 데서 더 많이 벗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본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더 많이 동참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더욱더 벗어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순환이다. ... 나는 이렇게 동참하고 벗어나는 순환이 내 안에서 강하고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부패한 것도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내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할 때, 이 신성한 본성은 나에게 힘을 주어 부패되는 데서 멀어지게 한다. 세상의 부패한 것에서 더 멀어질수록, 나는 더욱더 신성한 본성의 풍성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체험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서 우리가 본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누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다.(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44-4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5

4/09 수요일

아침의 누림

벧후 1:5-6

5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6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벧후 3:18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엢 4:13-15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각별히 부지런하여'(벧후 1:5)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모든 부지런을 함께 가져와'를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과 더불어, 그 약속들에 더하여, 역동적인 신성한 본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하여 각별히 부지런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1 장 3 절과 4 절에서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것은 1 장 5 절부터 7 절까지에서 발전된다. 믿음에다 미덕을 더하여 공급하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여 미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일한 원칙이 다른 모든 항목에도 적용된다. 베드로후서 1 장 7 절에서 '공급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상 '발전시키다'를 의미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전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미덕을 발전시켜야 한다.(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4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1 장 5 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며 (벧후 1:1), 신약의 생명의 축복으로 주어진 공동의 몫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신성한 생명의 미덕이 다음 단계들로 발전되어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1 장에 있는 믿음은 씨에 비유될 수 있다. ... 베드로전서 1 장에서 이 씨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갖고 있는 말씀이다. 이제 베드로후서 1 장에서 이 씨는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이 믿음은 의심할 바 없이 1 절에 언급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씨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씨가 토양에 심어진 다음에는 발전할 필요가 있다. 원칙은 믿음의 씨가 발전하는 것에서도 동일하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미덕을 발전시켜야 한다. '미덕'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직역하면 '탁월함'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활력 있는 행동을 산출하는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를 가리킨다. 믿음이 씨로 여겨진다면, 미덕은 이 씨로부터 나오는 뿌리로 간주될 수 있다.

베드로후서 1 장 5 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미덕에다 지식을' 공급하라고 말한다. 미덕은 활력 있는 행동이며, 계속 발전되는 항목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데서 오는 넘치는 공급이 필요하다(벧후 1:2-3, 8). 이러한 앎은 신성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과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것(1:3-4)에 관한 지식을 말한다. 우리가 우리의 미덕에 더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지식에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지식,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지식, 신성한 능력과 영광과 미덕과 본성과 생명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사실상 이러한 지식은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에 관한 지식이다. ... 나는 지식 역시 믿음이라는 씨로부터 발전되는 하나의 주요한 뿌리라고 믿는다. 미덕과 지식에 의해 씨는 성장한다.

자제(벧후 1:6) 혹은 절제는 자신의 감정과 갈망과 습관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지식을 얻으면 교만해지기 쉽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지식에다 자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제에는 제한이 함축되어 있다. 나무가 자랄 때 뿌리들은 퍼져 나가는 반면에, 줄기는 위를 향하여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자란다.

자제는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고, 인내는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견디는 것이 다.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인내에다 경건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건은 하나님과 같은 생활이며,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자신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견딤으로써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경건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믿음이 씨이고, 미덕과 지식이 뿌리이며, 자제가 줄기라면, 인내와 경건은 가지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충만한 발전을 본다. 그 발전은 씨로부터 나온 뿌리들과 줄기와 가지들이다. 결국 베드로후서 1 장 7 절에서 우리는 형제 사랑과 신성한 사랑이라는 꽃과 열매를 본다.(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47-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4/10 목요일

아침의 누림

벧후 1:7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벧전 3:8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생각을 낮추고,

벧전 2:17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하십시오.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갈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요 13:34-35

34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35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것으로써 여러분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요 15:16-17

16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계속 남아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7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인데, '-에 대해 애정을 갖다'를 의미하는 '필레오 (phileo)'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 (adelphos)'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그러므로 형제애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사랑이다.

베드로후서 1 장 7 절에서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agape)'이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신성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요일 4:8, 16). 이것은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한 것이며,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특질에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보다 더 능력이 강하고 더 역량이 크다(마 5:44, 46). 만일 믿는 이가 신성한 생명으로 살고(벧후 1:3) 신성한 본성에 동참한다면(4 절), 이 사랑으로 적셔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형제 사랑 안에서 발전되어 형제 사랑을 다스리고, 또 형제 사랑 안에서 흘러야 한다.(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48-4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1 장에서의 베드로의 사상은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거룩함과 형제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거룩함은 경건과 관련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표현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다.

질에서뿐 아니라 양에서도 ‘아가페’는 ‘필레오’보다 더 위대하다. 종종 우리는 어느 정도의 형제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편협하면서도 제한적일지 모른다. 우리의 사랑에 자신의 선호가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형제들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다. ... 베드로는 체험이 많은 형제로서 성도들 가운데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서 멈추지 않고 더 전진하여 ‘아가페’ 사랑에 대해 말했다. ‘아가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류, 즉 믿는 이들과 죄인들 모두를 사랑하신 깊고 고귀한 사랑이다.

마태복음 5 장 44 절부터 47 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내리시듯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뿐 아니라 원수들도 사랑해야 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는 그다지 많은 힘이나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는 특별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이 고귀한 사랑을 지녀야 한다.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는 특정한 형제를 선호하고 사랑하지만,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을지 모른다. 우리에게 그 두 형제 모두를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얕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깊고 고귀한 사랑인 ‘아가페’가 필요하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형제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한다.

베드로후서 1 장 5 절부터 7 절까지에서 우리는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는 발전을 본다. 이러한 발전 안에 미덕과 지식과 자제와 인내와 경건이 포함된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라는 씨로부터, 미덕과 지식이라는 뿌리와, 자제라는 줄기와, 인내와 경건이라는 가지를 거쳐, 형제 사랑과 신성한 사랑이라는 꽃과 열매에 이르는 완전한 발전과 성숙을 본다.

베드로후서 1 장 8 절에서 베드로는 더 나아가,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란 5 절부터 7 절까지에서 다루어진 모든 미덕들, 즉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에 이르는 모든 미덕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믿음과 미덕과 지식과 자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사랑과 신성한 사랑 모두가 우리 안에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은 신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중 오직 몇 가지일 뿐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씨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아야 한다. 바로 이 씨 안에 뿌리와 줄기와 가지들과 꽃과 열매가 담겨 있다.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49-5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4/11 금요일**아침의 누림**

요일 4:16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마 5:44-45

44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45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해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엡 3: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전 13:1-3, 13

1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이 됩니다.

2 내가 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13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생활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아마도 서로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다소 피상적인 사랑일 수 있다. 그들의 사랑에는 치료를 촉진하는 생명 공급과 '항생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그들의 사랑에 '아가페'가 결여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형제들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안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다. 그 요소는 바로 신성한 사랑, 곧 우리에게 형제들을 합당하게 사랑하도록 지혜를 공급해주는 사랑이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만, 어리석게 즉 그들을 손상하는 방식으로 사랑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이 생명 공급과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지혜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양분을 공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안에는 치료를 촉진하고 병을 예방하는 영적인 항생제가 담겨 있다. 우리가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항생제가 그들 안으로 주입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한 형제에게 어떤 부족이나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가르침이나 교정이 그 형제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형제의 필요는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형제를 이러한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는 생명 공급뿐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병균들'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받게 될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되, 어리석은 방식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들의 치료를 돕는 높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60-6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5 장 45 절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이것을 지혜롭게 하신다. ... 하나님은 그들을

분별력 있게 사랑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류하지 말고 모든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만 분별력 있게 그리고 또한 분량에 따라 제한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한 형제를 과도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를 손상할 것이다.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하되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도까지만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형제에게는 그보다 더 큰 분량의 사랑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형제 사랑만이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다.

종종 우리에게 있는 형제 사랑은 감정의 조류에 좌우된다. ... 어떤 형제들은 그들의 감정의 조류가 올라갈 때 여러분을 돕기 위해 무엇이랄도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의 조류가 낮아지면, 그들에게는 기꺼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 그러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의 감정의 조류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 사랑의 근원이 신성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의 조류에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신성한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한결같을 것이다. 누군가가 언제 우리를 접촉하든 우리는 자신의 사랑에 있어서 변함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되 언제나 분별력 있게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형제에게 어느 만큼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결과 그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가늠하여 알맞게 배분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그것과 다른 양의 사랑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고귀한 사랑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생활에도 이러한 신성한 사랑이 필요하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존중하라고 명령한다(벧전 3:7). 이렇게 하는 것에는 고귀한 사랑이 필요하다.

흔히 자매들은 남편을 감정적으로, 분별력 없이 과하게 사랑한다. 그러한 자매는 감정이 즐겁거나 기분이 좋을 때에는 그에 따라 남편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매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나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며, 그 안에 '아가페'의 요소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체험을 가진 또 다른 자매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한결같이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과하지 않고 분별력이 있는 사랑일 것이다. 이러한 사랑은 분명히 고귀한 사랑이다.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61-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4/12 토요일

아침의 누림

벧후 1:10-11

10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11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벧후 3: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불법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자신의 견고한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엡 1: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며

엡 4:1, 4

1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인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시다.

히 3:1, 6, 14

1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부름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님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6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이신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 때문에 생긴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14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 장 10 절에서 ... '부지런하여'는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영적인 미덕들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신성한 생명의 성장에서 진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한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 장 5 절부터 7 절까지에서 언급된 미덕들을 부지런히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선택하셨는 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지 모른다.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의심을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열거한 이러한 미덕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미덕들을 발전시키고 그것들로 조성된다면, 우리는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확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철저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다.(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넘치는 공급을 누리게 된다. ... 우리는 이 넘치는 공급을 받아, 우리의 탁월한 미덕들(에너지)로 말미암아, 곧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모든 풍성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만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왕국을 보상으로 얻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 장 11 절에서 '영원한 왕국'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데(단 7:13-14), 이 왕국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나타나게 될 것이다(눅 19:11-12).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의 미덕들이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실한 믿는 이들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왕의 직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딤후 2:12, 계 20:4, 6). 이와 같이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벧전 5:10, 살전 2:12).

베드로후서 1 장 11 절은 우리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입구를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코 신성한 씨를 성숙에 이르도록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입구를 건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신성한 미덕들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입구를 건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발전시키고 신성한 본성의 요소들로 조성된다면, 장차 올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려면 우리에게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주님의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신성한 생명의 성숙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어떻게 장차 올 왕국 안에서 왕이 될 수 있겠는가? ... 심지어 주님께서 성숙하지 않은 누군가를 왕으로 보좌에 앉히고 싶으셔도, 그 사람은 자신에게 왕의 직분을 행사할 역량이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 자신도 왕이 되려면 성숙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가리킨다.

베드로후서 1 장 5 절부터 11 절까지에 기록된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동일하게 보배롭고 놀라운 믿음을 할당받았으며, 이 믿음은 모든 것을 포함한 씨이다. 모든 신성한 풍성이 이 씨 안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하여 이 풍성을 미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미덕에다 지식을,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 경건에다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미덕들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자랄 것이고 결국에는 성숙에 도달할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엡 4:13). 그때 우리는 장차 올 왕국에서 왕들이 될 자격을 갖추고 준비될 것이다.(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55 쪽, 메시지 7, 6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4/13 주일

아침의 누림

마 13:3-8, 18-23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4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5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여 곧 싹이 나왔지만,

6 해가 돌아 내리쬘니, 뿌리가 없어 말라 버렸으며,

7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자라서 숨 막히게 하였습니다.

8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또 어떤 것은 삼십 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19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입니다.

20 또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21 그의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22 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 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반드시 열매를 맺어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육십 배, 또 어떤 사람은 삼십 배로 거둡니다.”